

 인천광역시	보도자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
	배포일자	2023년 3월 27일(월) 총 2매	
담당 부서	해양환경과	담당자	• 해양환경정화팀장 이동호 ☎440-7891 • 주무관 김보경 ☎440-7893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봄맞이 연안 정화 나서

- 27일, 환경단체 및 어촌계원 150여 명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-
- 올부터 민간단체 선정 및 활동지원으로 시민 참여기회 확대 -

인천시가 민간환경단체 및 어촌계원과 함께 봄맞이 연안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7일 중구 실미도 해안에서 중구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, 민간환경단체, 지역 어촌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스티로폼, 페어구, 페트병 등 육지에서 밀려온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해양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 연안정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지난해에는 영종도 및 옹진군 도서지역 해안을 대상으로 약 3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·처리한 바 있다.

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정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△영

중국제도시 영종봉사단 △가톨릭 환경연대 △백령도를 사랑하는 모임 등 3개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강화·인천연안·옹진 등 권역별 민간 연안정화 활동을 지원한다.

선정된 민간단체 및 시민과 함께 해양오염 취약지구에 대한 연안정화 활동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.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관광객이 많이 찾고 해안쓰레기에 취약한 실미도 해안 및 인천연안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, 바다지킴이 사업 등을 병행 하여 해양환경정화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또한 “인천시를 포함한 관련 행정기관은 물론 인천시민들도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양환경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.” 고 덧붙였다.

인천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앞으로 해양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·관이 협력해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15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